

2024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구자 최종 결과보고서

# 새가 나를 움직인다 : 탐조를 통한 도시자연의 환기 경험

Being Moved by Birds  
: Aesthetic Engagement with Urban Nature through Birdwatching

2025. 02. 03

박 소 영

#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새가 나를 움직인다: 탐조를 통한 도시자원의 환기 경험”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3일

연구 원 : 박 소 영 (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 초록

연구원	박 소 영	구분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새가 나를 움직인다: 탐조를 통한 도시자연의 환기 경험	
	영문	Being Moved by Birds: Aesthetic Engagement with Urban Nature through Birdwatching	
연구기간	2022.3.1 ~ 2022.12.31		
색인어	한글	탐조, 환경미학, 노엘 캐롤, 도시자연, 자연 관찰, 종 동정, 환기	
	영문	Birding, Environmental Aesthetics, Noël Carroll, Urban Nature, Nature Observation, Species Identification, Arousal	

최근 한국에서 도시 탐조가 확산되면서, 도시 자연(urban nature)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자연과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탐조를 통해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긴밀히 얽힌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도시 자연을 주로 생태적 가치와 환경 관리의 맥락에서 논의했지만, 탐조가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탐조 경험을 통해 도시 자연이 어떻게 인식되고 미학적으로 경험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탐조가 감각적 몰입을 통해 자연을 새롭게 경험하는 문화적 실천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탐조인들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탐조의 미적 차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탐조는 기술 매체(쌍안경, 카메라)를 활용하여 자연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쌍안경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새의 세부적인 특징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관찰자의 감각적 몰입을 강화하고 자연의 미적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둘째, 탐조는 과학적 범주화 과정과 연결되며, 동정(identification)을 통해 자연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탐조를 통해 새의 종을 구별하는 법을 익히면서 자연의 특수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했고, 이는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니라 인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정으로 작용했다. 셋째, 탐조

경험이 축적될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적 이동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새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한 종과 반복적으로 마주치면서 자연과의 정서적 연결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캐롤(Noël Carroll)의 서사적 연결(narrative structure) 개념과 연결되며, 탐조 경험이 개별적 사건이 아닌 연속된 이야기로 조직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 탐조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탐조는 도시 자연의 존재를 가시화하며, 기술 매체를 통한 관찰, 과학적 범주화, 그리고 일상적 환기의 과정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미적 경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탐조가 환경 정책, 시민 과학, 환경 교육, 그리고 도시 생태 미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탐조 경험이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Abstract

Urban birdwatching is rapidly gaining popularity in South Korea, offering new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of nature within the city. Traditionally, urban spaces have been perceived as separate from nature, but birdwatching reveals the complex entanglement of human and non-human life in urban environment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examined urban nature from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research on the aesthetic dimensions of urban birdwatching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plores how birdwatching serves as an aesthetic engagement with urban nature, emphasizing how birdwatchers perceive and experience urban nature through sensory immersion, cognitive explora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ith six birdwatchers, this study identifies three key aesthetic dimensions of urban birdwatching: (1) observation through technological mediation, (2) scientific categorization as a framework for aesthetic appreciation, and (3) everyday arousal, where accumulated experience transforms perception. First, technological tools such as binoculars not only magnify distant birds but also deepen sensory engagement, allowing birdwatchers to recognize fine details and interpret birds' behaviors within their ecological contexts. Participants reported experiencing a sense of aesthetic pleasure when they noticed intricate plumage patterns or subtle movements that would otherwise go unnoticed. This highlights how birdwatching unveils the particularity of urban nature.

Second, species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aesthetic appreciation. As birdwatchers learn to distinguish between species, their perceptual sensitivity to biodiversity increases, aligning with Noël Carroll's concept of aesthetic categorization, where scientific classification enhances appreciation by providing a structur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nature. However, some participants expressed concerns that prioritizing species count over immersive observation might reduce birdwatching to a superficial activity, diminishing its aesthetic and ecological depth.

Third, birdwatching gradually integrates into everyday life, altering habitual perception in a process termed everyday arousal. Over time, birdwatchers unconsciously recognize birds through auditory and visual

cues, extending their engagement beyond designated birdwatching sites. Repeated encounters with specific bird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ersonal narratives, strengthening a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urban nature. However, participants also observed disruptions in seasonal bird movements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shifts affecting migration patterns, which challenged their expectations and heightened their awareness of broader ecological transforma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urban birdwatching is not merely a recreational activity but a cultural and aesthetic practice that reshapes human relationships with urban nature. By engaging in sensory immersion, scientific exploration, and everyday environmental awareness, birdwatchers develop a deeper appreciation of urban nature and its ecological dynamic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rban birdwatching can inform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itizen science initiatives by fostering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nature within the city.

# 요 약 문

##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도시 탐조가 확산되고 있다. 탐조는 자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 자연(urban nature)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된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자연과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탐조를 통해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긴밀히 얽힌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도시 자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생태적 가치와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탐조는 관광과 여가, 생물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도시 탐조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탐조 경험을 통해 도시 자연과 인간-자연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조 경험을 통해 도시 자연이 어떻게 인식되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미학적 경험의 차원에서 탐조를 분석하여 도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자연이 나를 움직인다: Noël Carroll의 환기 이론

본 연구는 ‘새가 나를 움직이는(being moved by birds)’ 경험으로서 탐조를 해석하며, 이를 도시 자연을 환기(arouse)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접근은 노엘 캐롤(Noël Carroll)의 환기 이론(arousal theory)에 기반하며, 자연 경험이 본질적으로 문화적 요소와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 탐조는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는 문화적 행위이지만, 동시에 새라는 자연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캐롤은 미적 경험을 감정과 인지가 결합된 복합적 과정으로 보며, 자연에 의해 감정이 움직이는 경험이 미적 경험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캐롤에 따르면, 자연 경험의 미적 특수성은 단순한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관찰자의 지식, 기억, 상상력과 결합되며 정서적 환기를 이끈다. 예를 들어, 철새의 군무를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철새의 이동 경로와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면 경험이 더욱 의미 깊어질 수 있다. 이는 자연이 단순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관찰자의 감각적 몰입과 인지적 이해를 통해 더욱 깊이 경험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또한, 캐롤은 서사적 연결(narrative structure)과 미적 범주화(aesthetic categorization)를 제시하며 정서적 환기가 강화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서사는 경험을 연속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조직하며, 매년 같은 장소에서 철새를 관찰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미적 범주화는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며, 철새를 단순한 새가 아니라 멸종위기종으로 인식할 때 감상자는 더욱 강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 즉, 탐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감각적 몰입과 인지적 이해를 통해 도시 자연을 환기하는 미적 경험으로 확장된

다.

###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기술

본 연구는 6명의 탐조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면담에서는 개인의 생애사적 맥락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탐조 경험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탐조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탐조 경험은 각자의 배경과 관심사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탐조를 통해 감각적 몰입, 자연과의 관계 인식, 그리고 삶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A는 생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탐조를 접하면서 감각적 몰입과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했고, 이후 쌍안경을 사용하면서 탐조가 공간을 감각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B는 탐조를 통해 도시 환경과 생태계를 재인식하며 조경 설계 연구와 연계하였고, 탐조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C는 대학 탐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탐조를 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적 측면이 탐조 경험에 더 크게 작용했다. 이후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탐조를 다시 경험하며 자연 관찰 능력이 향상되었고, 귀국 후 업무 속에서도 탐조를 통해 일상에서 새를 발견하는 기회를 넓혀갔다.

E와 F의 탐조 경험은 각각 개인적 관심과 공동체 경험을 통해 확장되었다. E는 SNS를 통해 탐조 기록을 공유하며, 탐조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에서 인간과 새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되었다. 특히, 탐조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F는 개인 탐조와 시민과학 모임을 병행하며 탐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감각적 민감성이 탐조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탐조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탐조 모임을 통해 정보 교환과 공동 탐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탐조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감각적 몰입과 공간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이자,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는 방식을 고민하는 기회가 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4. 도시 탐조의 미적 차원

#### 1) 관찰: 기술 매체를 통한 자연의 특수성의 발견

도시 탐조는 기술 매체를 활용해 자연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감각적 몰입을 증진하는 경험이다. 쌍안경은 단순히 새를 확대하는 기능을 넘어 관찰자의 인식을 확장하고 새의 생태적 맥락을 이해하는 감각적 참여를 강화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쌍안경을 통해 새의 세부적인 색감과 무늬, 행동을 관찰하며 ‘쾌감’을 경험했다. 캐롤(Noël Carroll)이 설명한 자연의 특수성(particularity)은 단순한 외형이 아닌 환경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며, 탐조는 새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과 환경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백로가 물이 없는 곳에 머

못거리는 모습을 보고 연구 참여자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환경적 조건을 고려한 행동임을 이해했다. 또한, 탐조를 통해 도시 자연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새들의 서식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과정도 나타났다. 그러나 쌍안경과 카메라가 새를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자연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탐조가 단순한 종 확인과 기록을 넘어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때 더욱 깊은 자연 경험이 가능하다.

## 2) 동정: 과학적 범주화에 따른 미적 감상

탐조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동정(identification)이라는 과학적 범주화를 포함하며, 이는 미적 감상의 틀을 제공하는 과정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탐조를 하며 특정 종을 동정하면서 자연의 특수성을 경험했고, 이는 캐롤의 미적 범주화(aesthetic categorization) 개념과 연결된다. 동정 과정은 탐조 이전에 모두 '참새'로 보였던 새들을 각각의 종으로 식별하게 하며, 감각적 인식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탐조에서 인지적 호기심(cognitive curiosity)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에서 나아가 새의 생태적 특성을 탐색하는 동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가 특정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유를 고민하거나, 미처 동정하지 못한 새를 촬영하고 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하는 등 자연을 탐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탐조가 단순히 '종 추가'에 집중될 경우, 자연을 표면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로 변할 위험도 존재했다. 일부 탐조인들은 탐조 커뮤니티에서 '몇 종을 봤느냐'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정량적 목표가 탐조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결국, 탐조가 단순한 종 확인이 아니라 자연의 특수성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탐색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때 더욱 깊이 있는 미적 경험이 가능해진다.

## 3) 일상적 환기

탐조가 지속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의식적으로 탐조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새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상적 환기(everyday arousal) 과정으로 작용했다. 탐조 경험이 축적될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새의 울음소리나 작은 움직임과 같은 환경적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며, 탐조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 어디에서든 자연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한, 특정 새와의 반복적 만남을 통해 서사(narrative)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특정 철새를 만나며 '올해도 왔네'라는 감탄과 함께 기억을 쌓아갔다. 이러한 과정은 캐롤이 설명한 시간적 연속성과 정서적 연결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과 유사하며, 탐조 경험이 개별적 사건이 아닌 연속된 이야기로 조직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적 주기성이 흐려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철새가 예상한 시기에 도착하지 않는 경험을 하며, 기존 자연 주기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는 혼란을 느꼈다. 탐조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도시 환경과 생태적 변화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

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 탐조를 사례로 삼아 도시 자연의 실체와 인간-자연 관계를 탐구하며, 도시 환경 속에서도 자연이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탐조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이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탐조가 도시 생태 및 환경 정책, 환경 교육, 그리고 도시 생태 미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탐조 활동이 도심 속 자연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하여 탐조 친화적 공원 및 녹지 조성을 고려하고, 시민 과학과 연계한 생태 연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탐조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술적으로는 환경 미학 및 감각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목 차

---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관심 현상	1
1.2. 선행문헌 검토	4
1.3. 연구의 목적	9
2. 자연이 나를 움직인다: Noël Carroll의 환기 이론	9
3. 연구의 방법	13
4. 도시 탐조 경험의 기술	16
5. 도시 탐조의 미적 차원	27
5.1. 관찰: 기술 매체를 통한 자연의 특수성의 발견	27
5.2. 동정: 과학적 범주화에 따른 미적 감상	29
5.3. 일상적 환기	32
6. 결론	34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관심 현상

#### 1) 연구의 배경

##### *도시-자연 이원론의 허구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탐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취미로 여겨지던 탐조에 청년층과 아동을 동반한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탐조의 확산은 그 무대를 도시로 옮겨가는 것과 함께 한다. “아파트 탐조단”, “서울의 새” 등 탐조 단체 및 프로그램은 보존지역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와 같은 전통적인 탐조 장소뿐 아니라 공동주택, 도시공원, 도시하천에서 새를 관찰함으로써 도시에서 자연과 만난다. 도시 탐조를 통해 도시민은 생활 세계에서 실제 자연과 관계 맺는 것이다.

도시는 자연과 분리된 장소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도시-자연 이원론은 개발에 따른 물리적인 도시의 변화와 그에 수반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식론에 따라 지속되어 왔다. 자연녹지는 개발 압력에 따라 사라졌으며 물은 댐, 상하수도, 담수관 등 인프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제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비인간 생물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대다수 인간의 일상에서 자연은 비가시화되고 자연과 유리된 라이프스타일이 고착되었다. 도시의 인간은 비인간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학습하기 어려우며 환경을 인식 상 구조적으로 배제한 채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Amel et al., 2017)

도시자연(urban nature)에 대한 이해 역시 도시-자연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다. 도시자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녹지 체계, 수체계로 인식하고 생태계 서비스로서 자연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법과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량 연구는 도시에서 자연의 가치를 이해 및 응용 가능하게 만들지만, 도시자연을 동질적인 체계로 추상화하여 숲, 나무, 새 등 고유한 존재를 익명으로 만드는 위험이 존재한다(McPherson et al., 1997; Nowak 외., 2002; Millward and Sabir, 2010). 이때 ‘자연’은 인간이 건설한 도시에 동원되는 대상이다. 기존 ‘도시자연’ 이해에는 안타깝게도 존재론적 만남, 즉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 사이의 다중 간 얽힘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도시 공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조경학 역시 이러한 이원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조경의 일반적인 자연생태분석은 원거리의 식생, 수계, 지형 등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매핑하는데, 이는 인구 통계, 역사, 경제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사회분석과 분리되어 실시된다. 즉 같은 대상지에 대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분석은 별개로 이루어진다. 조경학의 자연에 대한 접근 역시 기존의 도시자연 이해를 따르는 것이다. 조경은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경험을 생성하는 실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천의 기저에 도시-자연 이원론이 있는 것이다. 조경 실천, 즉 조경 설계와 계획의 지배적인 방법에는 자연과의 질적인 관계, 즉 자연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 **도시 탐조: 인간과 얽힌 도시자연의 실존**

그러나 실제 도시는 인간이 자연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파트, 공원, 가로수에서 새를 조우하는 도시 탐조가 이를 실증한다. 자연은 산업화 이전과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 도시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의 라이프스타일과 인식 구조 또한 자연을 비가시화하지만 탐조 실천을 통해 배경의 자연은 전경으로 나타나고 친밀하게 감각된다. 즉 탐조는 도시-자연 이원론을 뛰어넘는 실제적 도시자연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실천이다. 또한 탐조는 인간에게 실제 자연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 친밀하게 얽힌 장소로서 도시를 불러낸다. 보다 실제에 가까운 도시자연을 둘러싼 문화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공간 실천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도시-자연 이원론을 극복한 도시자연에 대한 질적 조사가 필요하다.

#### **연구자가 경험한 자연문화로서 도시 탐조**

국내에서 부상하는 도시 탐조 현상은 기존 도시자연 이해를 넘어 도시와 인간에 물질적으로 얽힌 존재로서 자연의 실체를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이다. 도시 탐조는 2020년 이래로 국내에서 부상하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사의 대상이다. 또한 연구자 본인이 다양한 도시자연 관련 실천의 맥락 속에서 직접 탐조를 체험하면서 기존 녹지나 물 중심 도시자연의 경험과 다른 ‘자연과 인간, 기술이 뒤얽힌

문화'로서 새라는 도시자연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조경학자이자 환경미학자로서 식물원과 수목원 현장에서 정원 가꾸기의 실천과 도시 가로수 관련 질적 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특히 식물과 관계하는 다양한 스케일과 방식을 경험했다. 연구자는 모니터 앞에서 원거리의 자연을 분석하는 계획부터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사시사철 민감하게 변화하는 풀과 나무를 돌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본 연구자는 도시자연의 실제적 이해를 확장하는 한편, 도시자연을 둘러싼 관계적 경험, 이를테면 가드닝과 정량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생태계 계획 사이를 연결하는 단위를 고민하던 찰나, 서울의 한 공원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정원과 도시에서 식물 뿐 아니라 날아드는 새라는 다른 종류의 자연의 실제와 마주하는 체험을 했다. 본 연구자는 다른 탐조인(birdwatcher)의 안내를 받으며 친숙하던 공원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새를 만났고 이후 도시에서 이전보다 새와 환경을 민감하게 경험하는 감각 세계의 변화를 경험했다.

탐조는 새를 감각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이다. 탐조를 통해 인간은 자연을 단지 보고 읽는 등의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 새에 따라 멈추고 움직이는, 그것을 위한 기술과 감각을 정교화한다. 이러한 문화는 새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과 도구, 새를 보거나 듣기 위해 환경을 읽는 방법과 행동 규범, 이 모든 것을 체화하는 숙련된 탐조인 혹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즉 탐조는 '자연과 인간, 기술이 뒤얽힌 문화', 도나 해러웨이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연문화'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연 혹은 문화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문화로 향유되는 탐조가 도시자연을 드러내기에 적실한 현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도시 탐조는 원거리의 정량화된 도시자연을 보는 실천과 가드닝 등 직접적 참여 경험 사이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자연과 문화 사이, 거시적 계획과 미시적 참여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도시자연 경험으로서 탐조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 2) 관심 현상

본 연구는 도시자연 경험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상으로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

근 3년동안 급부상한 한국의 도시 탐조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의 탐조와 다른 점 두가지는 탐조의 무대로서 도시의 부상과 연령층의 확대이다. 도시의 아파트나 공원, 하천에서 새를 관찰하는 탐조 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며, 탐조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도시의 일상적 장소에서 만나는 경험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남주원, 2021.10.11). 탐조 관련 출판물 역시 최근 3년 간 증가했는데 도시의 새에 대한 출판물도 다수 출간되었으며, 탐조 관련 도서 및 물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복합문화공간도 도시에 등장했다(김동인, 2023.6.30). 시가화된 지역 바깥이 아닌 주변의 도시 공간에서의 탐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탐조가 도시와 분리된 자연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도시와 결합한 자연 경험임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 탐조는 청년층의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데(김지숙, 2020.6.9), 이때 도시 탐조는 새로운 여가 문화로 청년층에게 향유된다. 도시 탐조 관련 매체 및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최근 3년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락다운이 시행되던 시기로서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청년층은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백선희 외, 2022). 도시 탐조의 부상 역시 이러한 청년층의 여가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도시를 주요 무대를 삼아 탐조를 경험하는 탐조 2.0세대는 인간-자연 이원론, 도시-자연 이원론의 인식 구조를 넘어 색다른 자연문화로서 탐조를 경험하고 있다.

## 1.2. 선행문헌 검토

도시자연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도시자연 연구는 주로 공원녹지 체계, 도시 숲, 가로수 등 그린인프라 또는 하천, 우수 관리 등 블루인프라에 관심을 둔다. 이와 별개로 탐조 관련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관광 또는 여가로서 탐조의 특성을 규명하는 관광학 및 여가학 중심 사회과학 연구, 인간의 삶에 질에 미치는 새의 효용에 대한 양적 연구, 마지막으로 새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있다. 세 유형의 연구는 정량적, 정성적 차원에서 인간과 새의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며, 일부 연구는 도시에서 인간-자연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새 지각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양적 연구이며, 질적 연구는 도시 바깥의 공간에서 시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세 유형의 선행문헌이 밝힌 성과, 특히 관광 및 여가로서 탐조의 특성, 최근 도시에서 인간과 새의 관계적 특성, 탐조 체험의 사회적·물질적 특성을 이해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새 관련 연구의 지형 속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을 찾고자 한다.

### 1) 관광·전문화된 취미로서 탐조

국내의 경우 탐조 인구는 1,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며, 지역마다 동호회 등 커뮤니티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포괄하여 구축된 조직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탐조 활동이 비교적 대중화되어 있으며 탐조 관련 관광 및 레저 산업이 발달했다(CBI, 2011; 이병우, 2018.12.13.). 그러나 탐조는 다른 생태 관광과 구분되는데, 탐조는 대단히 전문화된 활동으로서 일반적인 여행객에게도 문턱이 낮은 여타 생태 관광과 다르게 특성, 동기, 헌신의 수준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Hvenegaard, 2002 외). 무엇보다 탐조인은 전반적인 야생의 체험, 경관의 감상이 아니라 특정한 종을 포착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둔다는 점이 일반적인 생태 관광이나 야생 관광과의 차별점이다.

따라서 여가학 분야에서는 탐조를 '취미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 혹은 '진지한 레저(serious leisure)'으로 주로 접근된다. 취미 전문화 관점의 탐조 연구 역시 탐조인의 특성과 인간과 새의 관계성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탐조인은 전문화의 정도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데, 먼저 Scott & Thigpen(2003)에 따르면 탐조인은 다음의 네 그룹으로 나뉜다: 부정기적인/캐주얼한; 관심 있는(interested); 활발한, 숙련된(skilled) 탐조인. 이들의 연구는 탐조인의 세분류에 따라 요구, 동기, 관여의 수준,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가령 숙련된 탐조인, 활발한 탐조인의 경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탐조를 위한 지출이 큰 경향이 나타난다. Sali(2007)는 탐조인의 동기에 작용하는 다섯 가지로 자원 감상, 지적,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영향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화의 수준에 따라 지배적인

등인이 두드러지는데, 보다 숙련된 탐조인의 경우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성별에 따른 탐조 특성 연구는 남성과 여성 탐조인의 상반된 경향을 드러낸다. Sali et al.(2008)는 뉴욕의 남성과 여성 탐조인의 특성을 조사했는데, 남성은 성취와 경쟁 지향적이며 탐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은 스스로의 도전과 자연 속에 존재함을 즐기는 편이었다. Scott et al.(2005)의 연구도 유사한 경향을 드러냈다. 남성과 여성 간 헌신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은 더 숙련되며 종 리스트를 직접 간수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반면 여성은 야생을 보존하고 다른 탐조인들과 상호작용하려는 동기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전문화된 취미로서 탐조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렇듯 탐조의 다양한 동기, 참여 방식, 성별에 따른 특성을 드러낸다.

## 2) 도시에서의 새 지각

### 새 지각의 건강·심리적 효과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인간의 '웰빙'에 초점을 두고 도시 새와 식생이 인간의 심리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였다. 특히 Cox & Gaston(2015)은 영국 남부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정원에 찾아오는 새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함으로써 인간이 새의 종을 식별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질 때 자연과의 연결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인간과 새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근 연구는 실제 일상의 맥락에서 인간의 정신 웰빙이 증진된다는 점을 보였다(Hammoud et al., 2022). 이 연구는 도시 인구를 대상으로 앱을 이용해 1292명의 연구 참여자의 새를 보거나 들을 때의 정신 웰빙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의 인간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 단순히 도시 자연이 양이 아니라 일상 속 다종 간 상호작용이라는 질적 차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도시의 새와 인간의 건강, 심리 상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가 '새 소리'에 초점을 둔다. 많은 연구가 새 소리가 건조 환경의 소리보다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빠른 각성을 가능하게 하고 기분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Alvarsson et al., 2010 외). 그러나 인간에게 긍정적 각성 또는 스트레스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새 소리는 종에 따라 크게 다르다(Cox ' Gaston, 2015, Ratcliffe et al., 2013 외). 새 소리에 대한 다수 연구는 새에 대한 시각적 관찰 뿐 아니라 청각적 차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종에 따라 인간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다양한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팬데믹 시기 도시 새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 내 새 지각에 관한 연구는 인간과 새의 만남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정책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에서 새 관찰과 새 모이주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났다(Roll et al., 2021; Basile et al, 2021). 해당 연구들은 시민과학플랫폼 iNaturalist 데이터, Google trend의 검색량, Wikipedia의 페이지 조회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조치에 따라 전문화된 탐조인뿐 아니라 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 모두에게 도시의 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의 도시 탐조 증가 현상이 보편적 차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도시의 '실체' 자연으로서 새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종 간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 나아가 자연에 접하는 활동이 가능한 도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자연 관련 활동을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Basile et al, 2021). 이러한 일상에서의 인간과 새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Cox, ' Gaston, 2015; Hammoud et al., 2022) 코로나 시기 도시의 새 관찰의 증가는 팬데믹 이후 새와 인간의 관계의 질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양적 연구에서 인간과 새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 탐조 체험과 사회적·물질적 얽힘

새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애착, 지식, 장소감,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탐조 경험에 접근한 선구적 연구는 Angelo(2013)의 ‘Bird in hand: How experience makes nature’로서, 현상학적이며 총체적인 상황으로서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 개념에 토대하여 탐조인과 조류학자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새에 대한 상이한 종류의 사랑이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방식과 친밀한 경험을 통해 감응적(정동적; affective) 감수성으로서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을 드러냈다. 한편, 새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새와 인간의 관계보다는 탐조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Wilkinson et al.(2014)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접근법을 활용해 탐조 실천과 장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탐색했다. 이 연구는 ‘종 목록’을 작성하고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탐조 실천이 ‘집’과 ‘바깥’, 서식지의 장소감과 집-만드는-이(home-maker), 시민 과학자, 관광객의 정체성 형성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Whitehouse(2017) 역시 새와 관련된 장소 경험을 조사하는데 연구 대상을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대조적인 조류상을 가진 국가를 이동한 인물들의 경험을 조사하여 장소와 국가에 결부된 경험과 정서를 밝혔다.

2020년 전후로 탐조 경험에 대한 연구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흐름 속 최근의 연구들은 새와 인간뿐 아니라 이들의 신체와 도구, 기술의 상호 얽힌다는 점에 주목한다(성한아, 2022; Chaltov, 2023). Chloe(2023)는 탐조인이 자연을 ‘읽는’ 방식, 즉 쌍안경의 렌즈를 통하여 탐조인이 자연(의 정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이때 감각의 역할을 탐구했다. 이 연구는 비전문 여성 탐조인 세 명의 인터뷰하여 탐조 경험이 지극히 감각에 의존하는 동시에 현장 안내문이나 종 목록과 같은 확립된 도구가 신체 경험에 일부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한아(2022) 역시 탐조 경험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성을 드러낸다. 그는 겨울철 조류 센서스라는 생물학적 조사에서의 철새와 조사원의 행위성의 상호 관계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는 일방향적으로 자연을 길들이는 것이기보다 새와 현장의 물질-기호를 읽어내기 위해 인간 스스로의 신체를 길들이는 다른 차원의 실행이다. 두 연구 모두 탐조의 실천이 종 식별 및 목

록 작성, 나아가 자연 관리라는 인식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자연 및 기술이 얽혀 신체와 사회 현상이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행 연구를 통해 인간과 새의 물질적, 사회적 얽힘과 도시의 자연으로서 새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지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이며, 질적 연구는 도시 바깥의 공간에서 시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도시에서 새라는 비인간 자연을 조우하는 과정, 비가시화된 자연의 환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에서 비인간 자연인 새를 감각하는 인간 종의 관점에서 탐조 경험을 서술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1.3. 연구의 목적

도시 탐조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인간, 기술이 뒤얽힌 실천이며, 특히 여가 문화로서 탐조를 향유하는 2020년 이후의 탐조인들은 자연과 문화가 얽고 얽히는 지점에 위치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식 구조에 뿌리깊게 자리한 인간-자연, 도시-자연 이원론을 극복하고 인간에 물질적·사회적으로 얽힌 도시자연을 적실히 드러내기 위해 최근 부상한 도시 탐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도시 탐조에서 지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탐구하여 도시 탐조를 사례로 인간과 자연의 문화적 얽힘을 드러낼 것이다.

## 2. 자연이 나를 움직인다: Noël Carroll의 환기 이론

### *Being Moved by Nature*

본 연구는 '새가 나를 움직이는(being moved by birds)' 경험으로서 도시 탐조에 접근하며, 인간-자연 관계의 관점에서 이것을 도시자연을 환기(arouse)하는 경험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미학자 노엘 캐롤(Noël Carroll)의 환기 이론(arousal theory)에 기반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경험은 주체가 인간이므로 본질적으로 문화적이며, 또한 문화

역시 자연의 조건과 힘과 연관 속에서 형성된다. 탐조 역시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탐조를 인간 주체가 새를 관찰하는 문화이며 동시에 새라는 자연에 크게 좌우되는 활동이다. 이렇듯 자연과 문화의 대립항으로 위치하지 않는 경험에 대하여 본 연구는 캐롤의 이론을 빌려 ‘자연이 나를 움직이는’ 경험으로 접근한다. 캐롤은 경험의 대상이 자연이건 대중 예술이건 순수 미술이건 모두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동하는(emotionally moved) 경험임을 지적한다. 자연에 의해 감정이 움직이는 경험은 단지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의 하위에 놓인다. 이때 움직임은 반드시 긍정적인 ‘감동(mov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까지 포함하는 모든 정서를 포괄한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대상이 정서적으로 주체가 반응한다는 점(emotional responses)에서만큼은 자연과 예술, 혹은 문화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Carroll, 2012).

캐롤은 경험에 접근함에 있어 지성적인 반응과 더불어 본능적인 반응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는 인식론적 차원을 배제하지 않는데, 대상의 독특한 특성과 그에 대한 주체의 믿음(belief)에 기반해 감정적 반응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누군가 다가오는 탱크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탱크에 관한 정보(탱크는 강력하고 무겁다는 것)와 탱크에 대한 스콧의 믿음(탱크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Carroll, 1993). 탐조 경험 역시 종의 독특한 특성과 그에 대한 믿음에 따라 구성되며, 탐조를 통해 주체의 마음이 움직인다. 나아가 주체의 신체도 움직이며(행동),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캐롤의 ‘자연에 의해 내(주체)가 움직이는’ 경험은 탐조를 이해하는 적절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렇듯 감정이 움직이는, 다른 말로 새로운 감정이 이는 원초적 경험을 캐롤은 환기(arousal)라 표현한다. 요컨대 탐조는 ‘새가 나를 움직이는(being moved by birds)’ 경험이며, 나아가 도시자연의 환기 경험인 것이다.

#### 정서적 환기와 자연 경험의 특수성

캐롤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인간의 정서(emotion)과 인지(cognition)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우리

가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순간의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롤은 정서적 환기(emotional arousal)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상과 관찰자 간의 상호작용이 미적 경험의 핵심이라 설명한다. 이는 곧 미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의미는 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being moved)이며 이러한 정서적 환기는 대상을 개인적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캐롤에 따르면 정서적 환기는 감각적 참여(sensory engagement)를 통해 강화된다. 또한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 바깥의 대상, 가령 대중매체 또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도 정서적 환기와 감각적 참여가 발생하므로 드라마 감상이나 자연 관찰 역시 미적 경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엘 캐롤은 영화를 보는 경험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동기와 맥락을 이해할 때 감정적, 감각적 몰입이 증폭된다. 이렇듯 영화와 드라마가 감각적 참여를 통해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처럼 자연 관찰 또한 대상을 이해하고 맥락을 인식할 때 미적 경험의 깊이가 확장된다.

정서적 환기가 미적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회화, 영화, 소설 등의 감상과 자연 경험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나아가 관찰자가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적 경험의 내용은 달라진다. 특히 노엘 캐롤은 자연의 특수성(particularity)이란 표피적 외형의 특질을 넘어 그 대상의 환경적, 개인적 맥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대상의 행동, 서식 환경, 계절 변화 등 요소가 관찰자의 경험에 깊이를 더한다. 또한 캐롤은 자연의 특수성이 물리적 특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그러한 특성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관찰자의 지식, 기억, 상상력 등은 대상의 행동, 환경, 계절적 특성과 결합되어 관찰자에게 독특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겨울 철새의 군무를 보는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철새의 긴 여정과 경로를 이해하고 감탄하거나 그의 고단함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감상의 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쓰며 대상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심화시킨다. 캐롤은 이 경우 자연 대상은 단

순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관찰자의 지식과 감각적 몰입을 통해 더 깊이 경험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즉 자연은 관찰자를 특정한 정서적 상태로 이끈다.

### 서사적 연결과 미적 범주화

노엘 캐롤은 미적 경험의 '서사'를 정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구조로 제시한다. 영화에 대한 철학에서 캐롤은 서사(narrative)가 관객이 등장인물과 사건에 정서적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영화나 소설에서의 서사가 존재할 때 미적 감상은 감각적 즐거움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정서적인 경험으로 심화된다. 캐롤에 따르면 서사는 '관계적' 구조(narrative structure)로서 순간의 기계적 나열이 아니며 시간적 연속성과 정서적 연결을 통해 관객이 의미를 조직하게끔 한다. 즉 관객은 대상 간의 연속적인 감각적,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며 대상에 대한 정서적 연결을 심화시키고 하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전시킨다.

자연 경험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 경험에서 관찰자가 특정 대상과의 만남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때 여러 의미가 발견·축적되고 깊은 정서적 반응이 유발된다. 캐롤은 자연보다는 전통적인 '서사적' 예술에서만 미적 경험의 구조로서 서사를 강조했지만, 이러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맥락적 이해와 정서적 환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경험된다는 그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 경험에서도 서사 구조가 작동함이 암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자연 경험의 서사 구조를 파악해볼 수 있다. 가령 앞서 예로 든 겨울 철새의 군무는 상황에 따라 따라 보기 좋은 풍경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에 나타나고 다음 해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를 찾는 새의 여정은 관찰자의 기억 속에서 점차 하나의 이야기로 조직될 수도 있다. 철새가 가로지르는 경로와 환경, 변화의 흔적들은 관찰자에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자연을 피상적으로 감상하거나 혹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며 몰입하면 할 수록 나와 대상 간 서사가 두텁게 쓰여질 것이다. 즉 캐롤의 서사 이론을 자연 경험으로 확장할 때 자

연은 서사적 경험의 원천이 된다.

캐롤은 또한 미적 경험을 구조화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미적 범주화 (categorization)을 제시한다. 미적 범주화는 감상자가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 결정하는 틀을 제공하며 캐롤은 범주화가 정서적 반응을 강화하거나 때로는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서 괴물을 '징그럽고 치명적인 존재'로 범주화하면 관객은 더 큰 공포와 긴장을 느끼게 된다. 미적 경험에서 감상자가 대상에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미적 범주화 (categorization)는 개인이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구조화하는데, 이러한 범주는 종종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호 체계를 준거 삼는다. 자연 경험에서도 범주화의 가장 강력한 준거로서 생물학적 분류 체계 또는 생태학적 지식이 제시되곤 한다. 이 경우 미적 범주화는 '과학적' 범주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령 균무를 이루는 겨울 철새가 두루미이며 그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관찰자는 두루미의 생물학적 분류와 그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루미라는 종이 시베리아와 중국 등지에서 월동을 위해 매년 관찰자가 있는 지역을 찾는다는 생태적 지식이 더해진다면 경험은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보다 풍부한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며 따라서 보다 역동적인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 즉 두루미에 의해 관찰자는 감각적인 차원을 넘어 인지적, 정서적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움직여진다.

### 3.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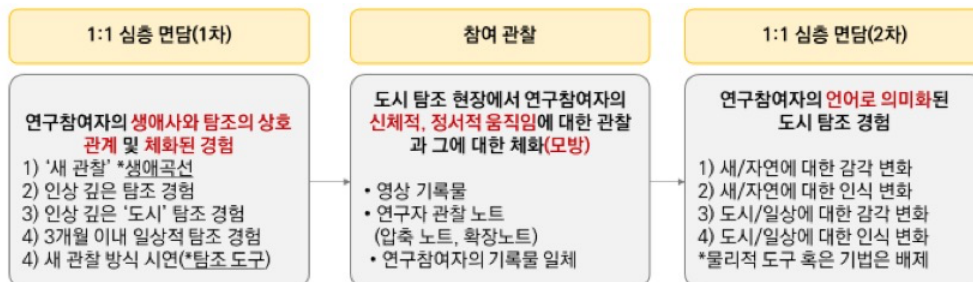
#### 표집 유형 및 조건

본 연구는 도시탐조 경험을 질적으로 서술하여 도시자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표집 방법은 자발적으로 생생한 경험을 기술해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스노우볼 표집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이후 지속적인 탐조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표집, 특히 탐조 및 시민 과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6명의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했다.

###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새가 나를 움직이는' 경험을 통한 탐조인의 인식 및 감각 세계의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1:1 심층면담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특히 '세 번의 면담' 절차를 참고하여 1회의 면담을 세 번의 세부 면담으로 구조화하여 진행했다. 즉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충분히 숙고한 뒤 먼저 생애사적 맥락을 훑고 이후 체화된 경험을 기술한 후 그에 대한 의미화의 세 단계로 감각 및 인식의 변화를 공유하도록 했다(Seidman, 2019). 이때 도시 탐조가 주로 쌍안경 등 도구에 의존하여 현장에서 새를 관찰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참여 관찰의 방법을 활용하고 비중을 크게 두어 실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세 번의 세부 면담 대신 두 번의 세부 면담과 한 번의 현장 관찰로 총 세 단계로 1회의 면담을 구조화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 자료 수집 절차



1단계, 첫번째 면담에서는 생애사와 체화된 경험을 면담하고, 2단계에서 탐조 현장에 통행하여 참여 관찰을 수행한 후,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3단계에서는 도시 탐조의 의미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때 첫 번째 면담에서는 탐조 관련 시청각 기록자료를 활용한 유도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생애사 숙고를 위한 '새 관찰 인생곡선 그리기' 기법과 탐조 도구를 활용한 시연 기법을 활용했다. 현

장 관찰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체화된 경험과 연구자의 이해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연구 참여자의 탐조에 동행했다. 이때 연구자는 탐조 경험을 체화하고 연구 참여자의 해당 경험 관련 기록물을 함께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탐조의 의미를 숙고해보는 2차 심층 면담에서는 이전의 면담과 달리 일체 도구와 기법을 배제하고 목소리, 즉 언어를 통해 의미화된 탐조를 통한 도시 자연의 인식 및 감각 세계를 서술했다.

### 연구의 엄격성

본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링컨과 구바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아래 절차를 수행했다 (Lincoln ' Guba, 1985; 1989).

- 본 연구는 연구의 사실적 가치(truth-value)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 관찰 내용을 요약하여 면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녹취록과 음성파일의 최소 세 군데 이상을 무작위로 비교하여 전사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의 반성 및 저널링을 통해 확증 가능성(confirmability)을 높이고자 했다.
- 연구과정 기록 및 코딩 북 제작을 통해 연구 절차를 반복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신뢰성(dependability)을 확보했다.
- 연구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확보를 위해 탐조 전문가 1인, 새 관련 생태학 연구자 1인의 감수를 받아 심층인터뷰, 현장관찰, 기록물 조사 내용이 실제 도시 탐조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다. 이상 본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링컨과 구바의 평가 기준을 참조하였다(Lincoln ' Guba, 1985; 1989)

### 연구 참여자 보호

-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전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형태와 용도, 익명성 보장, 자료 보관 방법, 연구 참여 도중 거부 가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서명 후 사본을 제공했다.

- 분석에 앞서 개인정보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명, 지명 등의 자료는 코드로 대체하여, 분석 단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사용했다.
-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면담 녹취본 및 녹화본, 현장 영상기록물, 연구 참여자가 생산한 기록물 일체는 모두 연구자 본인이 보관하다 분석 종료와 함께 폐기한다.

#### 4. 도시 탐조 경험의 기술

##### 1) 연구 참여자 A

A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취미를 찾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S 탐조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처음 탐조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탐조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올해 1월이었지만, 이전에도 자연과 관련된 경험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길동생태공원에 자주 방문하며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대학 시절에는 생태학 연구실에서 야생 조류 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박사 연구자들과 함께 한강과 남산에서 조류 조사를 도운 경험도 있었다. 졸업 논문 또한 두루미와 관련된 주제로 작성하며 철원에서 직접 조사를 했던 기억도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A는 1월에 처음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탐조라는 행위를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탐조를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A는 탐조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1월 7일, 눈이 내리는 날 처음 S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새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 불명을 하듯이 마음이 차분해졌다. 탐조하는 집단의 분위기 또한 편안한 인상을 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저기 새가 있네요’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며 함께 관찰하는 방식이었고, 특정한 새를 찾아야 한다거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강요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탐조를 단순한 관찰 행위가 아니라 감각적인 몰입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특히 운영자들은 새의 위치를 조용히 안내해 주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설명해 주며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2월에도 한 번 더 S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때 조경 설계를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가 탐조를 통해 생태적 연결성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탐조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한 새 관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탐조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깨달음은 탐조 경험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탐조를 통해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탐조를 하면서 A의 감각과 사고방식도 변화했다. 이전에는 업무에 몰두하는 것이 사고방식의 중심이었다면, 탐조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감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를테면 출퇴근길이나 일상적인 산책 중에도 새소리를 인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탐조뿐만 아니라 별을 관찰하는 등의 자연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탐조는 일상의 흐름을 깨고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었다.

9월에는 싱가포르 출장을 가게 되면서 탐조를 위해 처음으로 쌍안경을 구매했다. Sungei Buloh 자연습지 보호구역에서 탐조를 했는데, 탐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2시간이면 지나쳤을 공간을 5시간 동안 머물며 새를 관찰했다. 이 경험을 통해 A는 “세상을 감각하는 정도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육안으로만 보았을 때는 단순한 풍경이었던 곳이 쌍안경을 통해 세부적인 생태적 관계가 드러나고, 새들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는 탐조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각을 확장하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탐조 도구의 사용도 A의 탐조 경험을 변화시켰다. 처음 탐조를 시작할 때는 맨눈으로만 관찰했기 때문에 새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쌍안경을 사용한 후에는 보다 세밀한 관찰이 가능해졌으며, 새들의 행동과 생태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예를 들어, 육안으로는 그저 앉아 있는 새로 보이던 앵무새가 쌍안경을 통해 보면 열매를 따먹고 있는 모습까지 명확하게 보이며, 단순한 발견을 넘어 새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경험은 A가

탐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되었다.

## 2) 연구 참여자 B

B는 K시에서 자라며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항구로 둘러싸인 인공 지반의 도시에서 새를 볼 일이 거의 없었고, 어린 시절에는 ‘도시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중, 여름 학교에서 조경과 도시 디자인을 배우면서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했다. 도시에서의 자연이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서, K의 환경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조경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D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Y를 만나 탐조를 처음 경험했다.

B는 탐조를 전혀 몰랐지만, Y의 제안으로 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고, B는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탐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Y가 새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관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탐조 자체보다는 탐조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더 큰 만족을 느꼈다. 이후에도 Y와 함께 서울숲에서 소리를 녹음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 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서울숲의 다양한 환경음 중에서도 특히 새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 확장되었고, 탐조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탐조 경험이 쌓이면서 B는 새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과 생태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탐조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탐조를 학문적인 관심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즐겼지만, 점차 탐조와 도시 환경,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었다. 특히, 영화 수라를 보고 큰 인상을 받으면서 도시 환경과 개발, 생태가 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현재는 석사 논문에서 ‘K신도시’의 재야생화

가능성을 연구하며, 새와 인간의 관계를 설계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다.

도시 개발이 생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 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탐조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B는 탐조 자체보다는 탐조를 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다. 탐조가 새를 관찰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탐조를 하면서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탐조 경험을 통해 B는 자신의 관찰 방식과 감각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예전에는 도심 속에서 참새, 까치, 비둘기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탐조를 시작한 후에는 도심 속에서도 훨씬 다양한 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를 바라보는 눈이 트이면서, 도시 공간이 단순히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라 여러 생물종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장소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연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B는 탐조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청각적 경험도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서울숲에서 녹음 작업을 하면서,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새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는 감각이 발달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탐조를 위한 기술적 향상이 아니라, 도시 환경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탐조를 하면서 특정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를 시각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확장됨을 경험했다.

탐조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자신의 연구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B는 탐조가 도시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단순히 지나쳤던 공원의 녹지 공간이나 도시의 하천이 새들의 서식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조경 설계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B는 탐조를 통해 새를 더 잘 아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지식 축적이 아니라, 도시에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실천적

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B는 현재 K신도시의 재야생화 연구를 진행하며, 도시 개발 속에서 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탐조를 통해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고, 이러한 통찰을 연구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다.

### 3) 연구 참여자 C

C는 어릴 때 부모님은 자연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자녀들의 자연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위해 캠프를 보내주었다. C는 다큐멘터리에서 철새 군무를 보고 감탄한 기억은 있지만 실제 탐조 경험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식물에 관심을 가지며 씨앗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 탐조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선배의 추천을 받아 가입했고, 1학년 겨울방학에 제주도 탐조 활동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탐조를 경험하게 되었다.

야생조류연구회(야조회)라는 탐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를 많이 접했지만, 탐조 자체보다는 동아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은 탐조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조직 운영, 보고서 작성 등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학술 담당으로서 탐조 기록 정리와 보고서 작성 역할을 맡으며 동아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탐조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도 커졌다.

동아리 활동을 마친 후, 남미의 H국가로 농업 인턴을 떠나면서 탐조와 다시 연결되었다. 남미에서는 탐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현지에서 탐조 투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탐조를 즐기게 되었다. 탐조를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탐조 활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탐조 기록을 남기면서 새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졌다.

귀국 후에는 탐조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지만, M식물원에서 근무하면서 점차 다시 탐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M식물원은 C가 인식하기에 인

공적인 환경이었지만, 점심시간이나 이동 중에 새를 볼 기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새들을 점점 더 관찰하게 되었다. 이후 R수목원에서 실무를 지속하면서 M식물원보다 새들이 더 많이 서식하는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고, 출근길이나 일상 속에서 새를 관찰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C는 업무의 일환으로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식물 중심의 글을 작성했지만, 점차 파충류나 조류 등 다양한 생물군을 포함하면서 새의 생태적 변화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절에 따른 새들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관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이 쌓였다.

코로나19 이후 탐조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주변에서도 탐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유명 탐조 유튜버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이 탐조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직접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기도 했다. 솔방울에 견과류를 꽂아 두고 탐조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탐조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탐조가 단순한 자연 관찰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탐조 동아리에서 경험한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물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탐조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된다는 점에서 탐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탐조 경력 10년 차의 20대 후반 여성으로, 현재 서울 소재 P대에서 생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 시절 U대학의 야생조류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인 탐조를 시작했다. 현재는 P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평일 점심 즈음 등교한 이후 학교 캠퍼스에서 이동 중 일상적인 탐조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캠퍼스에서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을 진행하였다.

D는 20살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탐조를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자연과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탐조를 하게 된 계기는 대학의 야생동물 조

류연구회(야조회) 동아리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탐조 경험 없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취미였으나, 입학 후 야조회를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가입했다. 야조회는 탈퇴 개념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소속되어 있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는 탐조를 위해 서울 내 캠퍼스와 창경궁, 선정릉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철새 도래지의 섬을 방문하는 등 일정에 따라 다양한 탐조지를 선택하고 있다. 탐조 장소를 선정할 때는 희귀한 새나 다양한 종이 보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탐조 방식은 쌍안경을 사용하여 새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종을 동정하며, 일종의 수집 활동처럼 조류 목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Bird' 같은 앱을 통해 기록하기도 하지만,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경우 기록을 생략하기도 한다.

D에게 탐조는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도 새를 보게 되며, 연구 대상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동 중이나 여유 시간에 새를 관찰하는 일이 많다. 또한, 일상적인 이동 중에도 보이는 새를 인식하지만, 이를 탐조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야조회에서는 10종 이상의 새를 관찰해야 탐조로 인정하는 문화가 있어, 단순히 지나가다가 보는 것은 탐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D는 특정한 계획 없이도 새의 귀여운 행동을 보거나 특이한 새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새가 움직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도록 시각이 발달했다. 탐조할 때는 쌍안경을 사용하여 더욱 세밀한 관찰을 하며, 특히 보기 어려운 새를 만났을 때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 종을 동정한 후에는 새의 행동을 유심히 보거나, 특정한 종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D는 탐조에서 '많이 본다'는 것이 단순히 개체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종보다는 보기 어려운 종, 희귀성이 있는 종에 대한 관심이 크며, 같은 종이라도 보기 힘든 개체일 경우 더 신경을 쓴다. 특히, 탐조를 할 때는 수집적인 요소가 강해, 포켓몬고처럼 '이 종을 봤다'라는 느낌으로 기록하며, 한 번 본 새라도 보기 힘들다면 다시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말했다.

D는 철새의 이동을 통해 계절 변화를 감지한다. 겨울철새가 도착하는 시점이나 여름철새가 떠나는 시점을 보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체감하며, 최근 몇 년간 일부 철새의 도래 시기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조류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새들이 이제는 더 넓은 지역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탐조할 때는 쌍안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도감은 들고 다니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종을 이미 알고 있어 동정을 위해 도감을 참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Bird' 앱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흥미롭지 않거나 새로운 종이 없을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소리 동정을 위한 'Merlin' 같은 앱은 정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소리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 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탐조 경력 4년 차의 30대 초반 여성으로, 경영과 심리를 전공했다. 직장 퇴사 후 탐조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여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퇴사 전에는 서울숲에서 평일 점심시간마다, 그리고 선유도공원에서 매주 주말마다 탐조를 진행했으며, 생태공원이나 철새 도래지 등에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탐조 활동을 이어갔다. E에게 친숙한 선유도공원에서 심층 면담 및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E가 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새덕후' 영상이었다. 이전에도 무심코 새를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탐조라는 개념을 접한 후, 자신의 관심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쌍안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며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가까운 관찰을 통해 새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동물원에서 보는 새들과는 달리,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야생 조류를 관찰

하는 것이 탐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로 다가왔다.

탐조를 하면서 E는 한국과 해외의 탐조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의 도심 공원에서는 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 일러스트가 제공되는 반면, 한국의 생태공원은 주로 사진 위주의 안내로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았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탐조 유입이 늘어나면서 탐조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탐조가 더 이상 특정한 집단의 취미가 아니라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탐조는 E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활동이기도 하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기후 위기와 같은 절망적인 이슈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새를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생명력과 경이를 느끼게 해주며, 일상 속에서 활력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E는 단체 탐조보다는 혼자 하는 탐조를 선호한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온전히 새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고, 솔로 탐조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더욱 깊이 있는 관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도 야생 조류와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새가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다가오거나 인간의 돌봄 없이도 반려동물과 유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묘사했다. 특히, 아파트 탐조단이나 버드 피딩 문화가 도심 속에서도 탐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SNS는 E의 탐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탐조 기록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다양한 탐조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교환한다. 특히, 피드와 스토리를 차별적으로 활용하는데, 스토리는 즉각적인 공유에 적합하고, 피드는 체계적인 기록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탐조의 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탐조에 대한 E의 관심은 단순히 '종추(기존에 관찰하지 못한 종을 관찰해 관찰한 종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새를 찾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탐조는 그녀에게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해 탐조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탐구심을 기반으로 자

연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 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탐조 경력 2년 차의 20대 후반 남성으로, 건축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주말 오전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한강 일대에서 비정기적으로 탐조를 하며, 월 1회 철새 도래지나 섬을 방문해 보다 다양한 조류를 관찰한다.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은 난지천공원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F는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된 복수의 탐조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탐조뿐만 아니라 시민과학 모임을 통한 공동 탐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F가 탐조를 시작한 계기는 친구들의 영향과 여행에서의 경험이었다. 원래 야생 동물과 조류에 대한 관심이 있어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자주 시청해 왔고,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갔다가 쌍안경을 구입하면서 본격적인 탐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새를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지만, 탐조라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친구들과 함께한 탐조 경험 덕분이었다.

탐조 활동에서 F는 쌍안경과 카메라를 주요 도구로 사용한다. 쌍안경은 새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지며, 카메라는 탐조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새를 포착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선택했지만, 촬영 과정이 번거로울 때는 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관찰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다. 또한, 탐조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eBird'와 '네이처링'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한다. eBird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한 새를 기록하고, 네이처링에는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탐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F에게 탐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는 활동이다. 주말이나 휴가 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새를 관찰하며, 친구들과 탐조 모임에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기록을 남긴다. 그는 탐조를 최대한 간편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장비

나 비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도구만 갖춘 상태에서 탐조를 지속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탐조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취미로 자리 잡도록 하고 있다.

탐조를 하면서 F는 자신의 예민한 시각과 청각이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움직임이나 미세한 소리를 통해 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덕분에 탐조 모임에서도 환영받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각적 민감성은 탐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하며, 새를 찾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집중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탐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F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탐조는 자연스럽게 외출할 이유를 제공하며, 조용한 자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또한, 개인적인 탐조와 시민과학 모임을 비교하며 각 방식의 장점을 활용하는 편이다. 개인 탐조에서는 자유롭게 탐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민과학 모임에서는 탐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탐조인들과 교류하며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F는 탐조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자연스럽게 새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정한 종을 알지는 못했지만, 새가 보이면 확인하고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었으며, 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는 이러한 관심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어플을 활용해 모르는 새를 찾아보고 동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재미를 느꼈으며,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과학적 탐구심과 탐조 활동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탐조의 사회적 측면에서도 F는 의미를 찾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으며, 탐조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탐조에 대한 흥미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탐조 모임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새를 찾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탐조가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5. 도시 탐조의 미적 차원

### 5.1. 관찰: 기술 매체를 통한 자연의 특수성의 발견

탐조는 넓게는 '새를 보는 행위'이지만 통상적으로 탐조는 쌍안경과 같은 망원 렌즈를 동원한 새 관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쌍안경을 이용하면 육안으로 쉽게 놓칠 수 있는 멀리 있는 새 혹은 작은 새들의 세부 특징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쌍안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탐조 경험은 노엘 캐롤(Noël Carroll)이 말하는 자연의 특수성(particularity)과 정서적 환기(emotional arousal)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 탐조를 즐기는 연구 참여자들은 쌍안경을 이용해 새와의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새를 자세히 관찰하며 새의 종류와 외적, 생태적 특징을 확인하며 '쾌감'을 얻고 있었다. 즉 쌍안경은 새에 대한 '감각적 참여'를 지원하는 주요한 도구로 기능했다. A는 쌍안경을 통해 '손떨림까지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엄청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배울까지 있다'며 '보이는 폭이나 넓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쌍안경은 확대 기능을 통해 감각적 몰입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C는 더 나아가 쌍안경을 이용해 자세한 세부 특질을 볼 때, 가령 멀리서 단순히 주황색 새로 보이는 것을 쌍안경을 이용해 보았을 때 '선명한 주황색과 섬세한 무늬'를 볼 때 '쾌감'이 있다며 강조했다. D는 '쌍안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새도 더 자세히 보이고, 그 새가 뭘 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쌍안경을 통해 새의 행동을 뚜렷하게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연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듯 쌍안경은 단순히 새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찰자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했다. 탐조를 할 때 관찰자는 쌍안경을 통해 단순히 '새가 있다'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어떤 종인지', '예상하는 종의 특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는 미루나무 위에 자주 보이는 밀화부리를 보고 '아마 목욕하고 나서 젖은 깃털을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탐조는 새의 존재

를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 그가 놓인 환경의 맥락 속에서 그 종 혹은 개체의 특징과 습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캐롤은 자연의 특수성이 물리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그러한 특성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는 캐롤이 말했듯 자연의 특수성은 새의 단순한 외적 '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쌍안경은 종종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는 확대경 역할을 함이 드러난다.

이처럼 자연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니라 새의 행동을 통해 자연의 행위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D는 딱새를 언급하며 '딱새는 이렇게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데 앉아주고 사람 가까이로도 와줘서 관찰하기 쉬운 새예요. 별로 새가 안 보이는 날에도 아쉬움을 덜어주는 친구죠.'라고 했다. 이처럼 특정한 종 혹은 개체를 유사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될 때 관찰자는 새의 습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백로가 물이 없는 곳에 착지한 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F는 '아까 봤던 그 백로 같아요. 물이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물이 없어서 저기 앉아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백로의 행동을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이 일어나는 장소가 도시의 자연이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포착한 자연의 특수성은 곧 도시자연의 특수성이다. 나아가 이들은 도시자연의 행위성을 환경적 맥락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탐조를 하는 곳은 도심의 하천이나 공원으로서 이들은 이러한 도시녹지를 크게 '새들의 서식지' 혹은 '기착지'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들 환경의 변화가 새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관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E는 새는 '너무 깊은 물에 못 들어가니 얇은 물이 좋다'며 얇은 개울이 있는 공원을 높이 평가했고 F는 도시 하천의 관목을 쳐낸 결과로 숨을 곳이 사라진 새들이 해당 장소를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즉 새와 관계된 도시 환경과 새들의 존재 또는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도시 탐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반드시 자연의 행위성과 그와 관찰자의 생태적 관계

를 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쌍안경과 카메라 같은 도구가 자연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A는 '쌍안경을 들어 진짜 내 눈으로 관찰하기보다 카메라를 먼저 가져다 대는 경우가 있다'며 대상의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보다 기록을 우선하는 태도가 앞서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동시에 '새를 존중하는 애호가'가 아니라 사진 찍기에 급급한 '찍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은 탐조가 단순한 종 확인이나 사진 촬영으로 축소될 경우 관찰자가 이해하는 자연의 특수성 역시 피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관찰보다 수집이 우선시 될 때 탐조는 새와 과 상호작용하기보다 그를 보기 좋은 형태로 박제시키는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도시 탐조, 특히 쌍안경을 통한 도시 탐조는 도시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을 새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실체적 자연의 특수성과 행위성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쌍안경은 단순히 새의 모습을 확대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넘어, 대상의 맥락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감각적 참여(sensory engagement)를 강화한다. 하지만 자연을 발견하는 방식이 시각적 이미지의 수집이나 기록 행위에만 국한될 경우 관찰자가 이해하는 자연의 특수성과 행위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도시 탐조가 대상의 생태적 습성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질 때 도시 자연의 특수성, 나아가 행위성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

## 5.2. 동정: 과학적 범주화에 따른 미적 감상

탐조는 단순한 관찰 행위를 넘어, 대상을 특정 과학적 범주에 맞춰 분류 및 식별하는 행위, 즉 '동정(identification)'을 포함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새를 볼 때 그 새가 어떤 종인지 확인하는 행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종의 범주와 연관하여 자연의 특수성을 경험했다. 이는 캐롤이 설명하는 미적 범주화(aesthetic categorization)가 탐조의 과학적 범주화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캐롤에 따르면 대상의 미적 경험은 그것이 속한 범주에 대한 이해에 의해 형성된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상할 때는 그 대상을

특정한 범주, 가령 공포 영화, 전통 건축, 인상주의 회화 등으로 인식함으로써 적절한 미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탐조를 할 때 특정 종을 동정하는 행위를 통해 새를 과학적으로 범주화하며 이러한 범주화가 미적 감상의 틀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B는 탐조를 하기 전에는 도시에서 보는 모든 작은 새를 참새로 간주했다. 그러나 탐조를 시작하면서 점차 쇠박새, 박새, 곤줄박이 등 비슷한 크기의 여러 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종에 대한 식별은 특정 종이 가진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각의 틀을 제공한다. 갈색빛을 띠는 참새와 달리 노란 배를 가진 박새, 회색 배를 가진 쇠박새, 황갈색 몸에 대비되는 흰 뺨과 검은 머리를 가진 곤줄박이 등을 식별하면서 B는 탐조 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새들을 특정 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가 한층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C는 다른 탐조인의 말을 인용하며 탐조를 통해 여러 종을 인식하는 일은 '세계에 대한 해상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하나의 범주로 뭉뚱그려 보였던 대상이 탐조 경험을 통해 수많은 고유한 존재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과학적 범주화에 따른 미적 감상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인지적 호기심(cognitive curiosity)이었다. 인지적 호기심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을 넘어 그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지적 동기를 의미한다. 탐조의 경우 생물 분류학, 조류학에 기반한 과학적 성격의 취미임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지적 동기가 매우 두드러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새를 '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종인지, 나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했다.

가령 E는 탐조를 하며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특정 새가 관찰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에 '왜 있는가?' 그리고 '왜 없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E는 환경적 맥락에 따라 새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의식적으로 탐조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를 관찰하고 어떤 새인지 알아보는 행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원래 지적 호기심이 강한 편이었다. 이

와 유사하게 F 역시 '왜 솔딱새의 다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등 특정 종을 찾는 것뿐 아니라 그의 생태학적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탐조의 핵심적인 즐거움으로 꼽으며 '특정한 새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새를 찾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새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탐색 과정은 탐조가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 아니라 새의 존재를 해석하고 감각과 인지적 호기심을 연결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정이 되지 않은 새에 대해 언급을 전혀 않았으며 관찰한 새를 동정하면서 그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C, E, F는 동정하지 못한 새의 경우 촬영하거나 혹은 새 소리를 녹음하여 후에 동정을 시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캐롤이 말하는 미적 범주화 과정과 일맥상통하는데 특정한 미적 경험은 대상이 특정한 범주에 속한다는 전제가서일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에서 동정의 과정은 곧 탐조의 미적 감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동정보다 더 높은 층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탐조를 무엇이라 정의하느냐에, 즉 탐조를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서 미적 감상의 방향이 달라졌다. 대학의 탐조 동아리 출신의 연구 참여자 D는 출신 단체의 탐조에 대한 기준인 '10종 이상의 새'를 관찰했을 때의 행위를 '탐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이하의 종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새를 보긴 했지만 탐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D는 의식적으로 '탐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과적 이동 속에서 늘 가볍게 새를 보고 있었다. 이는 탐조의 범주화가 탐조 행위 자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A, E, F는 본격적으로 탐조를 시작하기 이전 '탐조인 지 모르고 한 탐조'가 있다고 밝혔다. E가 탐조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언급한 '새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쌍안경이 없어도 혹은 본 새가 10종이 되지 않아도 탐조로 의미화할 수 있었다.

탐조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정량적 목표가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탐조가 피상적 관찰 행위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했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종 추가'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탐조인들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C는 대학에서 탐조 동아리에 처음 가입했을 때, '너는 지금까지 몇 종 봤어?'라는 질문이 당시 속했던 탐조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는 '덕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몇 종을 봤느냐'인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이 미친 듯이 종 추가를 위해 새를 찾으러 다녔어요'라고 회고했다. E 역시 '종 추가'에 급급하여 철새의 텃새화나 길 잃은 새의 증가 등의 이상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탐조인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량적인 수집에만 목표를 둔 탐조는 캐롤이 경고하 바 있는 피상적 감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 탐조에서 과학적 범주화는 미적 감상의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인지적 호기심을 통해 탐조 경험은 감각적 참여와 지적 탐색이 결합된 과정으로 확장된다. 동정을 통한 탐조는 자연의 특수성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하지만 탐조의 목적이 정량적 목표 달성에만 국한될 경우 미적 감상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

### 5.3. 일상적 환기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의식적으로 '탐조'를 시도하지 않을 때, 주로 일상적인 이동에서 새를 발견했다. 탐조 경험이 축적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명확한 의도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새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탐조를 시작한 뒤 F는 집에서 창문 밖을 보다가 '새'를 발견했다. C는 2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산책하다 수많은 종의 새를 접하고 놀란 경험이 있었다. 이는 탐조가 '탐조에 적합한'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가 출현한다면 일상적 장소 어디라도 감각적·정서적 몰입을 통한 도시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을 포괄함을 드러낸다.

탐조가 일상적인 지각 방식에 통합되면 도심 속에서도 새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특히 새 소리로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B는 탐조를 시작한 후 '동네에 살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삐꾸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으며 E는 녹슨 자전거 소리와 비슷한 '구리스 칠 안한 쇠소리'의 딱새의 울음소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길을 걷다 자전거 소리가 날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특정한 환경적 단서(새의 소리, 움직임, 서식지)를 인식하는 감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탐조 경험이 반복되면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주

의가 무의식적으로 새의 존재를 포착하도록 감각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었다. 이렇듯 탐조가 감각적으로 체화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새들과의 만남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로 조직해 나갔다. 이는 캐롤이 설명한 시간적 연속성과 정서적 연결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서사의 구조와 상통한다. 도시 탐조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적 장소에서 마주치는 새들과의 서사를 만들어 나갔다. 가령 F는 도시 탐조에서 자주 마주치는 딱새를 언급하며 '딱새는 꼭 한번씩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E는 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 마주친 직박구리가 '인생 첫 직박구리'같았다며 이후 직박구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탐조 경험이 특정한 종 혹은 개체와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탐조를 통해 특정한 새를 매년 같은 시기에 보게 되는 경험도 서사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같은 종을 마주치며 그 새에 대한 서사를 형성하는 경험을 했다. 가령, E는 나그네새인 노랑딱새를 보고 '올해도 왔네'라는 감탄과 함께 매년 이맘때쯤이면 같은 가지 위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D는 쌍안경이 없어 정확히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새에 대해서 '저만한 크기에 지금 올 만한 애는 상모솔새밖에 없어요'라며 종을 추정했다. 이처럼 특정 새와의 반복적인 조우는 탐조자가 새를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사로 경험하도록 했다.

한편 E는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계절에만 보이던 새가 텃새화되거나 예상했던 시기에 도착하지 않는 등 자연의 주기성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면서 혼란을 느꼈으며 더 이상 기존의 계절 구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라면 이맘때쯤 철새가 와야 하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예상보다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는 특정 계절에 특정한 새를 만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는 탐조를 통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몸으로 체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마주하는 새들은 단순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시간적 흐름 속에서 탐조자의 기억과 연결되며 의미화되는 존재로 변화한다. 나아가 새를 포함한 더 큰 자연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하며 기대와 기억, 변화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캐롤의 서사 이론을 적용하면 탐조에서 새와의 만남은 이전의 경험과 앞으로의 기대가 연결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적 환기로서 일련의 탐조 경험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시간적 연결성을 갖는 개인적 서사로 변모한다. 탐조 경험이 개인적인 서사로 변모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 C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나무 위의 새들이 이제는 '여기에도 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새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새가 나에게 익숙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탐조 경험이 축적되면서 새와의 관계가 단순한 관찰에서 정서적 연결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탐조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관찰자는 새와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이러한 서사적 연결을 통해 자연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다.

## 6. 결론

본 연구는 도시 탐조를 사례로 삼아 도시자연의 실체와 인간-자연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기존의 도시-자연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 도시 환경 속에서도 자연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며, 탐조를 통해 이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탐조는 단순한 관찰 행위를 넘어, 쌍안경과 같은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자연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과학적 범주화를 통해 새를 식별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탐조 경험은 감각적 참여를 강화하며, 정서적 환기와 연계된 자연 감상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탐조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하며,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삶의 태도와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작용했다. 특히, 탐조가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이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시 탐조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

의 탐조 연구가 주로 생태적, 환경적 측면에서 새의 서식지와 인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도시 탐조가 기술, 감각, 정서, 지식이 얽힌 문화적 경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탐조를 통해 자연을 경험하는 과정이 감각적 몰입과 인지적 탐색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의 결과는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조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시 생태 및 환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탐조 활동이 도심 속 자연 인식과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탐조 친화적 환경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활동과 연계하여 탐조 데이터를 도시 생태 연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탐조 경험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 및 시민 강좌에 적용하고, 박물관, 생태 센터, 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 자연을 이해하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 미학 및 감각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속에서 자연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환경 미학 및 지각 연구 분야와 연계하여 학술적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특정한 도시 탐조 참여자들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탐조인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탐조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 자연을 조명하였으나, 도시 환경과 생태적 맥락에서의 자연 변화와 그 영향을 보다 깊이 다루지는 못하였다. 셋째, 감각적 경험과 기술 매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 요인, 정책적 측면과의 연결 고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탐조 경험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의 다양한 녹지 환경(근린공원, 하천, 아파트 단지, 국립공원 등)에서의 탐조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탐조를 통한 자연 인식 변화가 실제 환경

보존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탐조를 통해 일상적 환경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을 조명하며,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이 단순한 정량적 분석이 아닌 감각적, 정서적, 문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도시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인. (2023년 6월 30일). 새 관찰이 처음이라면 탐조책방을 찾자.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25>
- 김지숙. (2020년 6월 9일). 탐조는 어르신 취미? 젊고 가까워진 '도시 탐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46337.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46337.html)
- 남주원. (2021년 10월 11일). '새덕후'가 포착한 티스푼 부리 가진 멸종위기종 (영상). *뉴스핌*.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9>
- 백선혜, & 이정현. (2022). 코로나 19 전후 서울시민 여가활동 변화의 집단별 차이-청년층 (20대)과 노인층 (60대 이상)의 여가활동 변화 비교. *서울도시연구*, 23(4), 1-22.
- 성한아. (2022). 종이 종을 셀 수 있을 때: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의 신체, 경계거리, 현장 문해력. *과학기술학연구*, 22(3), 69-106.
- 이병우. (2018년 12월 13일). 한국에 '탐조 협회'가 필요한 이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74278.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74278.html)
- Alvarsson, J. J., Wiens, S., & Nilsson, M. E. (2010). Stress recovery during exposure to nature sound and environmental noi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3), 1036-1046.
- Amel, E., Manning, C., Scott, B., & Koger, S. (2017). Beyond the roots of human inaction: Fostering collective effort toward ecosystem conservation. *Science*, 356(6335), 275-279.
- Angelo, H. (2013). Bird in hand: How experience makes nature. *Theory and Society*, 42, 351-368.
- Basile, M., Russo, L. F., Russo, V. G., Senese, A., & Bernardo, N. (2021). Birds seen and not se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mpact of lockdown measures on citizen science bird observations. *Biological Conservation*, 256, 109079.
- Bricker, K. S., & Kerstetter, D. L. (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4), 233-257.
- Carroll, N. (1990). *The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the heart*. Routledge.
- Carroll, N. (2008). On being moved by nature: Between religion and natural history. In A. Carlson & S. Lintott (Eds.), *Nature, aesthetics, and environmentalism: From beauty to duty* (pp. 89-107).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rroll, N. (2010a). *Being moved: Film, fiction, and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oll, N. (2010b). *Art in three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Carver, E. (2009). *Birding in the United States: A demographic and economic analysis: Addendum to the 2006 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associated recreation*.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Division of Economics.
- 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CBI]. (2011). *Bird watching tourism in the UK*.
- Cox, D. T., & Gaston, K. J. (2015). Likeability of garden birds: Importance of species knowledge & richness in connecting people to nature. *PLoS ONE*, 10(11), e0141505.
- Diamant, E. S., MacGregor-Fors, I., Blumstein, D. T., & Yeh, P. J. (2023). Urban birds become less fearful following COVID-19 reopening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290(2005), 20231338.
- Gandy, M. (2006). Urban nature and the ecological imaginary. In *In the nature of cities* (pp. 78-89). Routledge.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 Hammoud, R., Tognin, S., Burgess, L., Bergou, N., Smythe, M., Gibbons, J., ... & Mechelli, A. (2022).

Smartphone-based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reveals mental health benefits of birdlife. *Scientific Reports*, 12(1), 17589.

Haraway, D. (2018). Staying with the trouble for multispecies environmental justice.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8(1), 102–105.

Haraway, D. J. (2004). *The Haraway reader*. Psychology Pres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McFarlane, B. L. (1996). Socialization influences of specialization among birdwatchers.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1(1), 35–50.

Ratcliffe, E., Gatersleben, B., & Sowden, P. T. (2013). Bird sounds and their contributions to perceived attention restoration and stress recove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6, 221–228.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ess.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4). *Understanding tourism: Basic glossary*.

[https://webunwto.s3-eu-west-1.amazonaws.com/2019-08/glossary\\_EN.pdf](https://webunwto.s3-eu-west-1.amazonaws.com/2019-08/glossary_EN.pdf)

Whitehouse, A. (2017). Senses of being: The atmospheres of listening to birds in Brita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Exploring atmospheres ethnographically* (pp. 61–75). Routledge.

Wilkinson, C., Waitt, G., & Gibbs, L. (2014). Understanding place as ‘home’ and ‘away’ through practices of bird-watching. *Australian Geographer*, 45(2), 205–22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